

2012년 12월 11일(화)

민실위보고서

‘신 보도지침’ 폐기하고 ‘선거방송 준칙’ 지켜라!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선거방송 준칙’이 있다. MBC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이 ‘선거방송 준칙’은 방송 선거 보도의 금과옥조를 명시해 뒀다. 이 ‘선거방송 준칙’은 여당을 지지하던, 야당을 지지하던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공정방송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지금 MBC 뉴스는 이 ‘선거방송 준칙’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신 보도지침’을 재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1. 재빠른 ‘신 보도지침’ 실행

조문기 정치부 부장대우 8일(토)

후보 행보 스트레이트 기사나 리포트 기사 작성 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경쟁 구도임을 유념해서 균형을 맞춰 써주시길..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문 후보 지지 유세원 중 한 명이기에 때문에 과거 대선 후보 때처럼 중계 방송하듯 기사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광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박 후보 행보 기사에 중계 방송하듯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트레이트, 리포트 기사와 화면 역시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양당의 움직임으로 균형을 맞춰주시길...

사실상 ‘안철수 보도하지 마라’

지난 8일 정치부 조문기 데스크가 부원들에 고지한 글이다. 글이 말하고 하는 바는 마지막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문재인, 그리고 양당의 움직임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후보 유세 보도에서 사실상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논리는 터무니없다. ‘안철수 = 한광옥’ 또는 ‘안철수 = 한화갑’이 그 논리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이를 수긍하겠는가? 안 전 후보와 관련해서는 안 전 후보가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해, 보도 여부와 보도 분량을 판단하면 된다. 이처럼 현장의 취재기자들에게 미리 ‘보도지침’을 내릴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 ‘신 보도지침’과 흡사

더구나 정치부의 지침은 새누리당의 입장과 거의 흡사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7일 “안철수 씨는 지금 현재 선거도 우미로 지원 유세를 하는 분이고 찬조 연설자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에 이렇게 많은 화면과 지면이 할애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인 만큼 언론사별로 이를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단장이 말 한지 불과 하루 만에 MBC에서 새누리당의 요구가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실제로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유세 지원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2. ‘선거보도 준칙’은 사문화!

그러면서 MBC뉴스는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선거보도 준칙’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A. 보도 순서

‘선거보도 준칙’ 2. 보도세칙 3) 보도순서

나.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 이 때 기사의 비중은 정치부가 판단하고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해 편집한다.

다.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다.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이 기준인데...

일반적인 선거보도는 1. 여당 2. 야당 3. 무소속 순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관련해 비중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여당 보도에 우선해 보도한다. 물론 이는 ‘선거보도 준칙’에도 명시돼 있다.

지금껏 선거운동 관련 보도 기사의 비중은 ‘선거보도 준칙’처럼 정치부가 판단해 왔다. 또 황용구 보도국장 이하 간부들은 편집회의에서 김장겸 정치부장의 의견에 이의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 선거보도 준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박 후보 특별한 일정 없어도 먼저 보도

지난 3일의 경우 후보 사퇴 이후 잠행하던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여야의 선거운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KBS와 SBS는 이 소식을 박근혜 후보의 유세 소식보다 먼저 전했다.

반면 MBC는 조문 외에는 별다른 일정도 없던 박근혜 후보의 동정을 먼저 보여줬다. 기사(박상규 기자 리포트)의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 ‘박근혜 후보가 이틀째 조문을 했고, 공약을 점검했고, 새누리당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뉴스 순서 배치가 과연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양식과 특이한 판단’의 예는 수두룩하다.

	MBC 정치뉴스	KBS, SBS
11월 7일	“여성 대통령이 쇄신”	단일화 협상 시작
8일	새누리, 단일화 맹공	단일화 실무협상 시작
12일	“단일화는 포장”	단일화 협상팀 구성
13일	朴, 충청권 민심 잡기	TV토론 합의
24일	朴, “민주당 구태 정치”	전날 안철수 사퇴.
12월 3일	박근혜, 이틀째 조문	안철수 “문재인 지지”

<야권에 큰 이슈 있는데도 MBC만 박 유세 먼저 보도한 사례>

야권 불리한 이슈 있을 때는 야권 먼저 보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물론 야권이 불리한 때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큰 파열음이 날 때, MBC는 나흘 연속으로 단일화 관련 보도, 즉 문재인-안철수 뉴스를 박근혜 후보 유세 뉴스보다 앞세웠다.

11월 20일	‘문-안’ 단일화 충돌... 가시 돌친 설전
21일	‘문-안’ 여론조사 문항 평행선
22일	‘문-안’ 직접담판도 ‘이견 팽팽’
23일	‘문-안’ 단일화 협상 안개속

<문-안 뉴스를 박근혜 뉴스보다 먼저 보도한 사례>

B. 보도 시간배분

‘선거보도 준칙’ 2. 보도세척 4) 시간배분

가. 여야 후보의 아이템 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리포트 길이와 아이템 수는 **보도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지난 6일(목)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안 전 후보의 사퇴 이후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모든 전문가들이 ‘대선의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평가한 ‘문-안’ 단일화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큰 뉴스이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어떻게 다뤘나?

‘안, 문 선거 전폭 지원’ 고작 ‘한 쪽지’

8시 뉴스 시작과 함께 톱뉴스로 다뤄졌어야 할 ‘문-안 단일화’ 뉴스는 8시 11분을 넘어서야 방송됐다. 편집부는 추위 관련 뉴스를 무려 7쪽지나 앞에다 배치했다. 시청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그날의 뉴스를 톱뉴스로 배치해야 하는 뉴스 편집의 원칙은 무시당했다. 방송3사 가운데서 오직 MBC만 추위 뉴스를 톱으로 배치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큰 뉴스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한 쪽지(전재호 기자 리포트)로만 전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 리포트의 절반은 문 후보의 공약 내용 등으로 채워졌다. 이런 큰 뉴스는 이에 따른 분석과 전망을 따로 한 쪽지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 후보의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대선 정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KBS와 SBS는 물론 그렇게 했다. MBC만 축소 보도한 것이다.

‘박근혜 유리·불리’가 아이템 선정 기준

이는 MBC가 선거보도 준칙에 명시된데 따라 아이템 수나 리포트 길이를 ‘내용과 비중’에 따라 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MBC는 아이템 수나 리포트 길이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정한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은 다음 날 보도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7일(금) <뉴스데스크>는 ‘安 캠프 균열... “쇄신 아니다”’는 제목으로 리포트(김대경 기자)를 했다. 1분 50초(앵커멘트 포함)나 되는 긴 리포트였다. 반면 타사들은 모두 문재인 후보의 유세 리포트에 이 소식을 한 문장으로 전했다.

내용은 조용경씨 등 안철수 캠프의 국민소통자문단에 참여했던 인사 9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 가운데 ‘조용경’씨 등 9명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안 전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소식을 전할 가치는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사안은 못 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보도한 것은 역시 ‘내용과 비중’에 따라 아이템 수와 리포트 길이를 결정하지 않고, ‘여당에 대한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이 두 리포트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MBC 정치부가 생산해 내는 상당수의 리포트가 ‘선거보도 준칙’을 여기면서 전파를 타고 있다.

C. 지역주의 적극 배제

3. 정보제공의 의무 3)지역주의 적극 배제

가. 지역 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뷰 및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의 선동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와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근혜 후보의 호남 유세를 보도(김현 기자)하면서 “호남 눈물 닦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매우 이례적인 뉴스 제목이다. 반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유세 보도는 ‘대학 표심 공략, 엇갈리는 文-安’이라는 매우 객관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유세 뉴스 제목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래는 ‘호남 표심잡기... 대통합 재개’라는 객관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방송 시간을 채 2.30분 정도 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감성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호남이 참여정부 시절 홀대를 받았으며, 박근혜 후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이 급히 변경된 것이다.

기사 내용도 지역주의를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뉴스데스크> 12월 5일

특히 노무현 정부는 호남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하자마자 호남의 뿌리였던 정통 야당을 없애버리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특히’라고 말하면서 시청자들을 주목하게 한 뒤, 지역주의 선동 언사를 거의 날 것 그대로 옮겨 보도했다. 반면 SBS는 “또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호남을 홀대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라고 순화된 표현으로 기사를 썼다. KBS는 박 후보의 이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다.

MBC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특히 호남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호남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지역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해야 한다면, SBS처럼 순화된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3.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

‘선거보도 준칙’ 맨 끝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사. 시행과 책임

3. 이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MBC 기자들은 보도 책임자들이 ‘선거보도 준칙’ 위반 기사가 어떤 기자에 의해 작성돼, 어떤 데스크와 부장을 거쳐 방송됐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또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준 뒤, 즉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요구한다.

예능 프로그램 강압 폐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2월에 버릴 거 다 버려야 한다. 올해 안에 1등 탈환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이 지난 11월 30일 창사기념사 중에 한 말이다. 사장은 이런 말과 함께 총 10분이 넘는 긴 시간을 예능부문을 질타하는데 할애

했다. 어제, 12월 10일 발간된 회사 특보의 머릿기사 제목은 이것이다. “1등 탈환 위한 기반 완료” 마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2개 예능프로그램 폐지’를 해치워 버렸다는 개가의 선언으로 읽힌다.

모든 것은 사장의 말 한마디 때문

<놀러와>와 <엄마가 뭐길래>의 폐지 과정은 실로 폭력적이다. 조합의 취재 결과, <엄마가 뭐길래>의 경우 예능본부와 편성국 간에 12월 셋째 주까지 시청률 추이를 보고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창사기념일 사장이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자마자 바로 다음주 월요일 PD에게 ‘폐지’ 통보가 내려졌다.

<엄마가 뭐길래>는 10월 정기개편 때 시작된 ‘신생’ 프로그램이다. 이전 <스텐바이>보다 시청률도 선전하는 중이었다. (*스텐바이는 마지막주 평균 4.2%시청률로 종영. <엄마가 뭐길래>는 일일편성 당시 6.6%.) <뉴스데스크> 이동으로 인해, 월-화 주 2회 편성이라는 날벼락을 맞지만 앓았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작진도 출연자도 그 누구도 이런 고초를 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놀러와> 폐지는 더더욱 폭력적이다. <놀러와>는 지난 8월, 400회 특집 방송을 회사가 강압적으로 불방시킨 전례가 있다. 생일 잔치상을 엮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모욕적인 폐지를 강제했으니 이건 거의 상습폭력 수준이다. 더욱이 <놀러와>는 최근 부단히 개선작업을 해왔고, 새로 나온 ‘트루맨쇼’나 ‘수상한 산장’의 호응도 좋아지는 추세였다. 예능본부에서 <놀러와>폐지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고, 그렇기에 새로 PD를 교체했으며, 그 새 제작진이 만든 첫 방송이 바로 지난 주 방송이었다. 당장 폐지될 프로그램이라면 무엇하러 제작진을 새로 투입하겠는가? 그런데 의욕적으로 첫방을 내보낸 담당PD는 방송이 나간 바로 이틀 후 일방적인 폐지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재석, 김원희 씨는 8년반 동안 함께 해 준 시청자에게 고맙다는 작별인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이 폭력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지난 목요일 보직인사에서 예능본부장과 예능국장이 경질되었다. <놀러와>와 <엄마가 뭐길래>의 담당CP(부장)도 모조리 경질되었다. 조합의 취재에 따르면, 교체되기 전까지 국장과 CP는 폐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다. 이 시점에 예능 보직자를 싸그리 갈아치운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후속작 없다. 준비된 거 없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술한 화제작을 만들면서 MBC의 경쟁력을 이끌던 예능본부는 지금 초토화 상태이다. <놀러와>와 <엄마가 뭐길래> 자리에 들어갈 후속작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음주 <엄마가 뭐길래> 자리는 단막 다큐멘터리가 채우고 이미 촬영이 다 끝난 <엄마가 뭐길래> 잔여분은, 시청자 뇌리에서 잊혀져 푹 떨어진 채 12월 마지막 주에나 방송될 예정이다.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없다.

그 후로는 아마도 다른 시간대에 방송중인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와 돌려막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려막으려 온 프로그램이 빠진 자리는 재방송이나 외주물로 때울 확률이 높다. <놀러와> 후속은?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 예능본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미 방송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연말 특집용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급하게 대체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9년 가까이 방송된 관록의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죽여버리다니, 어떤 시청자인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최강연승 퀴즈쇼Q>도 곧 폐지

사실 예능본부는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신임 본부장부터 막내 조연출까지, 예능본부는 이 갑작스런 폐지과정에서 완벽히 소외되었다.

하지만 뒷처리에는 또다시 고스란히 예능PD들의 몫이 된다. 올해 들어 MBC 예능의 수난은 사실 길게 이어져 오고 있다. 경영진의 조급증 때문에 몇 주 방송하지도 못하고 스러져 간 프로그램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예능이 말아야 할 자리를 외주사로 넘긴 굴욕적인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일밤> ‘매직콘서트’도 외주물이다.

이 두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조합의 취재에 따르면 조만간 <최강연승 퀴즈쇼Q>도 폐지될 예정이다. 역시 이 후속도 아직 준비된 바가 전혀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사장과 경영진이 지금처럼 PD의 자율성, 아니 예능본부 자체의 자율성마저 묵살하고 일방 조종하려 한다면 예능 프로그램 중 안정되게 운영될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다. 한 차장급 PD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의욕도 동기도 없다. 사장이 하나하나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능본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창의력이 집중되어야 할 예능 프로그램에 PD들의 의욕이 전혀 모이지 않는데 무슨 경쟁력 복원이 가능하겠는가.

무모한 경영, 광기 경영

일부 언론은 이번 예능 프로그램 종영 사태 원인을 ‘시청률 지상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근본 원인은 시청률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록적인 탄압,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이것만으로도 김재철 사장은 MBC의 시계를 30년전 전두환 시대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사장은 아직도 배가 고프 듯하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면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폐지된 두 예능 프로그램들은 그 불행한 희생양이다. 그의 광기어린 탄압경영은 실로 연구대상이다.

임기 내내 즉흥적이고 독재적인 경영행태를 보였지만 김재철 사장의 무모한 경영이 차원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은 뉴스데스크 시간대 이동 부터였다. MBC는 10월 첫 주에 이미 정기 가을개편을 했다. 1년에 두 번 있는 대규모 개편이다. <엄마가 뭐길래>도 이 때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개편 2주후, 김재철은 <뉴스데스크> 시간대 이동을 지시한다. 뉴스가 이동하면 편성표 전체가 완전히 뒤바뀐다. 그런데 이미 개편을 해 놓고는 보름만에 ‘창사 이래 최대 개편’을 다시 주문한 것이다. 정 하고 싶으면 2주전에 진작 했어야 하지 않나. 그 결과 일일드라마는 반토막이 났고, 시트콤은 조기종영되었고 뉴스는 제자리 걸음중이다. 무모한 경영의 실패다.(*뉴스데스크 이동전인 10월 마지막주 일일드라마 평균시청률은 13.2%, 시간대 바뀐 11월 마지막 주는 5.9%로 하락.)

이번 예능 프로그램 폐지 사태도 마찬가지다. 사장은 창사기념식에서 ‘내년 3월에 <허준2>가 일일 편성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사장 말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석 달의 기간이 빈다. 석 달은 내다 버리자는 건가? <놀러와> 후속도 대책없음은 밝힌 바 있다. 이 악순환은 이미 지난 몇 달 간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주얼리 하우스> <룰루랄라> <주병진쇼> 등등, 급하게 부랴부랴 방송했다가 흔적도 못 남긴 채 전사(戰死)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다. 이 불행한 악순환은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전 사(社)로 확장된 김재철 디스토피아

노동조합은 요즘 김재철 사장의 행태가 독재자의 말기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병적인 조직개편과 보직 흔들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는 사람은 다 내치고 있다. 구성원과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는’ 간부들은 점점 더 철퇴를 맞고 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미친 듯이 히스테리를 부려대던 히틀러 말기를 연상시킨다.

그는 점점 회사의 모든 것을 ‘일방적’ 경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예능본부에 대한 지금의 비이성적인 작태는 결국 예능PD와 예능본부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자율적 권리를 앗아가겠다는 것이다. 예능 뿐이겠는가? 사장은 창사기념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감사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세게 감사를 한다. 그러지 마시라.” 독립적 기능을 해야 할 감사실을 사장이 대놓고 협박한 것이다.

MBC에는 이제 탄압의 열외지역이 없다. 거꾸로 말해 합리적 업무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 사장의 지시를 순순히 이행하는 로봇이 되지 않는 한 MBC에서 언제 갑자기 김재철의 칼날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도대체 공영방송 MBC의 사장에게 이런 괴물같은 권력을 쥐어준 자는 누구란 말인가?